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의 교육적 함의*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oegye's Land Thought and Space Consciousness

장 은 숙**

Jang, Eun Suk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가 일생동안 기록한 시와 편지 등 토지관련 문헌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며, 그에 따른 교육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에게 결핍된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퇴계의 토지사상은 지인합일체사상으로, 공간의식은 천지인합일체사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퇴계가 귀향후 행한 행동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가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오사(吾事)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둘째, 퇴계가 주택을 건립하고 자주 이사를 한 이유는 오사를 완성하기 위한 최고의 입지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퇴계가 평생 오사를 추구한 이유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퇴계의 행동에 대한 교육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는 인성함양을 자연공간에 의해 터득되는 산물로 봄으로써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자연공간에서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퇴계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걸지령사상에 따라 수려한 자연공간과 학덕이 높은 선비를 배출한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퇴계는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교육지도자들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퇴계, 토지사상, 공간의식, 교육적 함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land related literatures such as poetry and letters recorded by Toegye during his lifetime, and based on such investigations and analysis it is aimed at reasoning out what is the land thought and space consciousness of Toegye and fostering the human natures of modern people by presenting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accordingly.

The findings support that the land thought of Toegye is related to such idea that "the land and human beings are one body" while the space consciousness has such idea that "the space, land and human beings are one body". Based on these thoughts and to present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n Toegye's philosophy he conducted after he returned back to his hometown, the first analysis of the

* 본 논문은 2018년 8월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청구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정회원·대구칠곡초등학교 교사·교육학박사(E-mail: gys4338@hanmail.net)

reason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the reason why Toegye wanted to quit his high class government position and return back to his home town was to prepare his own five principles. Second, Toegye built his house but moved frequently to find the best place to complete the five principles. Third, the reason why Toegye pursued the five principles for the rest of his life was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to build a right world from them.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n the philosophy of Toegye are as follows: First, Toegye suggests that an education to cultivate humanity is possible only in natural space and he regarded the cultivation of humanity as a product learned by natural space. Second, in order to foster the best talent, Toegye suggests the beautiful natural space and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environment producing high level classical scholars with both learning and virtue according to the thought of "a great person is come from the land soul". Third, Toegye also suggests that a drastic innovation of educational leaders is needed to establish the best education environment so as to foster the best talent.

Keywords : Toegye, Land Thought, Space Consciousness, Educational Implications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나타나는 대규모 탈도시화 현상에 의한 귀농·귀촌·귀향 현상¹⁾을 보면서, 퇴계가 공직생활 동안 70여 차례 관직을 버리고 그토록 귀향을 갈구(渴求)한 이유는 무엇일까? 퇴계가 귀향 후 주택을 건립하고 자주 이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퇴계가 도산에서 평생 오사(吾事)를 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등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된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된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퇴계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연구되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퇴계가 관직생활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입지(立地)를 찾아 여러 번 이사를 반복하였고, 퇴계 자신이 노송정에서 태어나 지산와사²⁾, 양

진암, 한서암, 계상서당, 도산서당 등을 건립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마련하고 건축하면서 남긴 수많은 시와 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상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퇴계가 일생 동안 갈구한 약 70여 차례 사직요구와 은퇴 이후의 시와 서(書) 등을 조사하면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이 도출되지 않을까하는 논리에 도달하게 되었다.

먼저 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옛날 선비들에게 있어서 시는 마치 요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전화하는 것과 같은 생활의 일부로 즐겁거나 슬플 때에 시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다.³⁾ 그러면 옛날의 선비들은 왜 그렇게 많은 시를 썼을까? 이에 대한 이유는 당시의 학문적 특성 때문이었다.⁴⁾ 옛날 우리 동양의 전통은 학문을 쪼개어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학문의 원리에 두루 통달하는

1) 귀촌 현상은 도시생활을 벗어나 자연경관과 환경이 좋은 농촌이나 어촌에서 생활하기 위해 이동하는 현상으로 생계를 위해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농 현상과 차이점이 있음.

2) 지산와사는 달팽이집처럼 규모가 매우 작다는 표현이며, 실질적인 집에 대한 이름은 양곡당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장우·장세후, 『퇴계시 풀이 1』,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p.160.

3)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퇴계전서 1』, 여강출판사, 1991, p.5.

통합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옛날 선비들이 조정에 들어가 정치를 하면 정치가, 물러나서 독서를 하거나 사색을 하면 철학자, 또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시나 글로 쓰면 문인, 붓을 잡으면 서예가가 되었다.⁵⁾ 퇴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본 연구는 퇴계의 저술 가운데 2,000여 편의 시와 3,000여 통의 서(書)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퇴계가 평소 산(山)과 하천(川), 전(田)과 집(家) 등 주거입지(住居立地)에 대해 갖고 있는 사상을 강학공간(건물과 시설)과 원림공간(산수와 자연경관, 격물치지와 거경함양)으로 구분하여 공부론과 수양론이라는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퇴계가 조선시대에 있어 성리학을 집대성하여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숭앙(崇仰)받고 있지만, 그가 또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노비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평생사업(吾事, 吾業, 我平生事)에 매진하기 위해 도산에서 만권 서를 읽으면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강학활동과 수양활동을 통해서 몸소 실천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퇴계의 수준 높은 실천적 삶과 사상을 특정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학제간의 연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퇴계가 일생

동안 기록한 시와 서 등 토지관련 문헌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통해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며, 도출된 결과에 따른 교육학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에게 결핍된 인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퇴계가 출생한 1501년부터 사망한 1570년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퇴계가 태어난 경북 안동군 예안현 온계리 지산와사·양진암·한서암·계상서당·도산서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강학공간과 원림공간을 포함한 생활공간으로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퇴계집』에 나타난 토지에 관련된 시와 서의 내용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사용하여 『퇴계집』에 나타난 시와 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제2장에서는 퇴계의 토지사상을 도출하고, 제3장에서는 퇴계의 공간의식을 도출하며, 제4장에서는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에 따른 교육적 함의를 교육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제5장을 결론으로 하고자 한다.

퇴계의 토지사상에 대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었으며,⁸⁾ 공간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論語』, 『陽貨 第十七』에서 공자는 “시는 의지를 흥기시킬 수 있으며, 정치의 득실을 관찰할 수 있으며, 무리 지을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으며, 가까이하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으며, 멀리하는 임금을 섬길 수 있고,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何莫學夫時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라 하여 예부터 시의 중요성을 말한다.

5)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퇴계전서 1』 전게서, p.4.

6) 퇴계의 재산규모는 자손들의 화회문기(和會文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솥가 5坐, 노비가 367口, 전이 1,895斗落, 답이 1,199두락 여로서 토지의 분포지는 세거지 외인현 일대를 위시하여 이 가문의 외가·처가 지역인 봉화·영주·풍산·등지였으며 세거지에 있는 토지만 해도 田이 1,007두락, 답이 442두락이나 되었다.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p.74.

7) 1995년까지 국내에 발표된 퇴계학 전문 연구서는 100여 권이었고, 개별 연구 논문은 1,000여 편이었으며, 국제학술회의에서 영문으로 발표된 논문만도 200여 편에 달함. 예문동양사상연구원·윤사순 편저, 『예문서원』, 2008, p.30. ; 2011년 7월 15일 충남대학교에서 ‘선비정신과 퇴계학’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대만의 학자들이 참가하여 퇴계학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됨.

8) 퇴계의 토지사상에 대한 선행 연구가 수백 년 동안 수행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토지라는 용어가 갖는 부동산에

2. 퇴계의 토지사상

본 장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첫째, 시에 나타난 토지사상이 무엇인가를 둘째, 서(書)에 나타난 토지사상이 무엇인가를 셋째, 서원기에 나타난 토지사상이 무엇인가를 넷째, 재산관리에 나타난 토지사상이 무엇인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2.1 시에 나타난 토지사상

퇴계가 지은 시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약 2,000여 수가 된다. 그 가운데 한글로 완역되어 발간된 책으로는 이가원의 『퇴계시역주』(정음사, 1987), 신호열의 『국역퇴계시 I·II』(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권오봉의 『퇴계선생문집』과 『도산전서』에 수록한 시를 모두 통합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해 놓은 『퇴계시대전』(여강출판사, 1992) 등이 있다. 이후에 『퇴계학역주총서』(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1993)가 발행됨으로 『퇴계선생문집』에 실린 시 2,000여 수가 모두 한글로 옮겨지게 되었다.

퇴계의 토지사상을 고찰하기 위해 『퇴계집』의 시 가운데 토지사상과 관련된 <삼도의 밭갈이를 금하다>, <농암 이선생의 영지정사 시를 차운하다>, <베풀어 주신 은혜 황공하여 두 번 절하고 삼가 시를 드립니다>, <내살메>, <답청하러 하산에 오르다>, <초옥을 시내 서편으로 옮기고 한서암이라 명명하다>, <퇴계에서>, <한서암에서>, <시내 서재에서 여러 가지 흥취를 읊으니 두 수>, 『도정절집』⁹⁾ 중에 있는 <시를 옮기고 읊은 시를

차운하니 두 수>,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를 화답하다>, <농암선생이 계당에 왕림하다>, <가을 회포를 읊으니 열한 마리아다. 왕매계가 한시를 화답한 것을 읊다가 느낌이 있어 이내 그 운을 쓰다>, <서당을 고쳐 지을 땅을 도산 남녘에 얻다>, <도산 남녘 동학을 다시 살펴보고 이를 읊어 남경상¹⁰⁾, 금훈지와 민응기와 아들 준과 손자 안도에게 보이다>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검토된 시를 토대로 퇴계의 토지사상을 제시하면 퇴계는 땅을 만물의 근원인 어머니로서 만물은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본래부터 하나의 몸체였다는 지인합일체(地人合一體)의 토지사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퇴계는 자연에 이름을 붙이고 의인화하여 친구, 형제로 삼아서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자각하였다. 나 속에 대자연이 있고, 대자연 속에 내가 존재하는 만물일체, 물아일체인 지인합일체로 보았으며 그 가운데 땅은 만물의 근원으로 천과 인을 담는 그릇으로 보았다.

2.2 서에 나타난 토지사상

퇴계의 서(書)에 나타난 토지사상은 퇴계가 평생 쓴 편지 중 지금까지 조사된 퇴계의 서간은 3,100여 통 이상이 된다.¹¹⁾ 그러나 『퇴계문집』 편집 당시에는 1,000여 통의 편지만 수록되어 있었고 문인, 제자들과 학문을 이야기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제외된 편지들은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워낙 방대한 분량이어서 모두 수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¹²⁾ 이 외에도 만아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토대로 토지사상 연구가 퇴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자료 수집과정에서 만난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 학문분야에서는 옛 성현들의 토지사상을 토대로 현재에 직면한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9) 『도정절집(陶靖節集)』은 도연명의 시문집이다. 그의 시호가 정절이므로 『도정절집』이라 하였음.

10) 남경상은 남몽오(南夢鰲)의 자요, 호는 삼송(三松)임.

11) 박균섭, 『선비정신 연구 : 앞·샅 교육』, 문음사, 2015, p.67. 이러한 서간의 대부분은 50세 이후의 노년기에 작성된 것임.

들 준을 비롯한 가족, 친인척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모든 일상의 가정사적인 내용이 많아서 사생활을 알리는 일은 당시로서는 스승의 행적에 누가 될 뿐만 아니라 경자본 문집 간행의 취지에도 맞지 않음을 의논하였을 것이다. 또한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보존하고 기리는 일¹³⁾에 어긋나며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스승의 행적에 누가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훗날 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노력으로 『퇴계집』에 실리지 않았던 수많은 편지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선비, 정치가, 유학자, 스승으로서의 퇴계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 할아버지, 친인척, 고향 어른으로서 예의와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걱정하며 보냈던 편지들은 자상함과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다.

특히, 수많은 편지 속에는 자신의 좌우명인 ‘천명을 기다린다’(至天命)와 공자의 ‘견득사의(見得思義)’ 예기의 ‘임재무구득(臨財毋苟得)’을 경계зам으로 삼아서 실천한 내용이 담겨 있다. 편지는 사우간(師友間)이나 선배가 후진을 계도하고 지위나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 간에는 서로 절차탁마하는 교육적 수단이기도 하였다. 퇴계와 제자들 간의 편지를 모으면 주자의 『연평답문(延平答問)』 못지 않은 퇴계의 ‘도산강의(陶山講義)’¹⁴⁾가 만들어질 정도로 방대한 자료이다. 많은 편지 가운데 퇴계의 토지사상을 엿볼 수 있는 가사 <도중에서 읽어 보라(途中開見)>, <준에게 보낸 편지(寄子騫, 辛亥年, 1551)>, <김사순(학봉 김성일, 1538-1593)에게 답한 편지(答金士純 己巳)>, <권호문에게 보내는 답서(答權生好文論樂山樂水)>, <단양산수가유

자속기(丹陽山水可遊者續記)>, <단양관우산수제영록(丹陽館宇山水題詠錄後)>, <유소백산록(遊小白山錄)> 등이 있다.

이상의 서에 나타난 퇴계의 토지사상을 요약하면, 서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해보면 퇴계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인합일체의 사상을 토대로 토지를 우리 모두의 공유물(共有物)로 보는 공유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용관점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사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계는 아들 준과의 편지에서 땅 보기를 풀과 지푸라기처럼 보고, 땅 문서를 한낱 종이처럼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산행기에서는 산 정상에 나무와 산골짜기의 나무가 크게 다른 것은 거처하는 곳의 기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했다. 생명의 자람은 농인 환경에 따라 몸체에 스며드는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행을 하면서 터득된 자연과 사람 간의 인과 관계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처럼 퇴계는 대지(지구, 땅) 위의 온갖 만물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지인합일체사상(地人合一體思想)을 토대로 토지를 공유물로 보는 경자유전사상(耕者有田思想)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2.3 서원기에 나타난 토지사상

서원기에 나타난 토지사상을 보면 퇴계가 살던 당시의 16세기 조선은 주자학적 이데올로기가 단 일사상으로 철저히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럴 수밖에

12) 이장우·전일주, 『퇴계 이황 아들에게 편지를 쓰다』, 연암서가, 2014, p.4.

13) 조목의 사직소에는 “신의 스승 이황은 평생을 학문에 힘썼는데, 그 공부는 늙어가면서 더욱 독실하였습니다. 염락(廉·洛) 이래의 제유(諸儒)의 바른 전통을 깊이 깨달았으니, 시문이나 논변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세도(世道)를 불붙고, 앞의 성인을 이어받고, 뒤의 후학을 계도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 글이 많이 산일되어 그 손자 안도(安道)가 수집하였으나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일찍 죽었습니다. 본가에서는 이것을 주관할 자가 없고, 그 글이 없어져서 세상에 전하지 못할까 합니다. 신이 벼슬자리를 물려나서 죽기 전에 이 일을 마칠까 합니다.”라고 하며 공조참판 벼슬에서 물려나서 최초의 『퇴계문집』 경자본(庚子本)을 만들었다. 정순목,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2011, p.328.

14)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퇴계전서 7』, 여강출판사, 1991, p.15.

에 없었던 까닭은 국토와 사상의 편협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조선의 건국 배경이 된 유교 정치체제와 관련이 깊었다. 성리학적 경세관에서 나온 명분론은 정권독점이나 유지를 위해서 주자학 이외의 사상체계를 가지는 것은 정치의 패배와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권을 절대적으로 하는 지배계급의 통치논리에서 보면 이(理)철학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당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시기였다.¹⁵⁾ 15세기는 조선성리학의 특징이 천명을 다하고 인성을 통정하여 마침내 사람됨의 길을 닦는 하늘과 사람의 문제는 부차적이고 오직 땅(地)과 경세(經世)의 논리가 지배적이고 하늘(天)·땅(地)·사람(人)의 삼재(三才) 가운데 땅의 질서를 확립한 시기였다.¹⁶⁾ 퇴계는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을사사화(1545) 등 당쟁을 거치면서 선비로서 직·간접적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선비로서 퇴계의 서원교육운동은 도의(道義)부재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도의적 판단 아래서 실천적 삶을 살도록 하자는 뜻에서 민간교육기관인 서원의 필요성과 서원창설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성균관·사학(四學)¹⁷⁾·향교 등 관학이 건재하였으나 인간세상의 도리가 점점 미약하고 선비들의 기풍이 닳아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퇴계는 절실하게 서원창설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의 생활화를 통하여 성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후진 양성에 힘써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도를 바로 세우고 선비다운 선비를 많이 길러서 착한 사람을 많이 배출하려는 것이었다.

퇴계가 그토록 서원 설립을 주창하고 건립하였던 가장 큰 뜻은 토지를 바탕으로 한 주변 환경을 통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경험하면서 얻어지

는 체험교육이 바탕이 되는 교육을 하고자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교육의 자율성이다. 선비라면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정치에 편승할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공부함으로써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진정한 공부를 하는 공간을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자연환경을 찾고 서원에 배향하는 학덕이 높은 선비의 고향 또는 그가 머물면서 존중받을 만한 학덕을 남긴 곳을 선택하여 서원을 창설한 것이다. 유학교육에서의 요산요수하는 일은 도의 산수를 소요하는 일이다. 퇴계에게 있어서 자연은 이와 기가 합치는 자리로서 자연을 자기화하는 마음자리이다. 이곳에서 물아(物我)는 일체가 되고 객관과 주관은 융합되며 자연과 인간은 합일될 수 있다.¹⁸⁾고 보았다. 자아와 하나 되는 물아일체론적 격물은 경의 자리에서 인간과 자연은 융회 관통되고 동정의 논리와 시(始)·통(通)·수(遂)·성(成)의 순환논리처럼 자연환경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정신적 자유를 만끽할 때 진정한 공부가 됨을 서원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다.¹⁹⁾

퇴계는 풍기군수 시절 경상도관찰사로 있던 심방백 통원(沈方伯 通源)에게 보낸 편지에서 풍기군수 주세붕이 일찍이 안향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소수서원을 사액서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치적을 얘기하고 중국의 예를 들어가며 서원이 국학이나 향교보다 이로운 점을 편지로 전하고 있다. 서원십영의 마지막 “총론제원(總論諸院)”에서 퇴계의 서원 창설은 처음에 의도한 바와 같지 않음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서원기에 나타난 퇴계의 토지사상을 요약하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의 고향 또는 존경받는 선비가 학덕을 남긴 곳에는 지령이 존재하기

15) 정순목, 전게서, p.165.

16) 상계서, p.165.

17)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퇴계전서 4』, 여강출판사, 1990, p.17. 사학(四學)은 조선조 서울에 있던 관학으로 중학(中學), 동학(東學), 남학(南學), 서학(西學)이 모두 성균관에 속해 있었으므로 성균 사학이라고도 함.

18)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2000, p.270.

19) 상계서, p.270.

때문에 걸출한 인재가 배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에 서원을 지은 것은 인걸 지령사상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2.4 재산관리에 나타난 토지사상

한국 성리학의 유종인 퇴계에 대한 가산규모나 치산이재라는 용어 자체가 퇴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생소한 느낌이 든다고 하겠지만 퇴계는 평소 태도와 행실에 어긋남이 없이 학문에 침잠하며 내외관직과 조야(朝野)를 출입하고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면서도 가업에 힘쓰며 재산관리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생활과 거리가 멀고 가계경영에 초연한 자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그의 가서 전편에 나타난 모습은 철저한 현실인·경제인[家事管理者]이었으며, 글 읽는 농부[事農]이기도 하였다. 그는 매년 시후와 농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근심하였으며 백성들의 처지에 대하여서도 가슴아파하였다.²⁰⁾ 아들과 손자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퇴계의 치산이재와 퇴계의 토지사상을 엿볼 수 있다.

퇴계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종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리파(主理波) 내지 영남학파의 영수로서 퇴계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학문세계와 업적 등 생활실사(生活實事)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와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미세한 분야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된 퇴계 연구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규명해야 할 곳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유독 퇴계의 경제적 기반인 가산의 유래와 규모 및 치산이재(治產理財)에 관해서는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점이 남아 있다.²¹⁾ 퇴계 서거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정표와 지름길로 인식되며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퇴계의 재산에 관한 언급은 하고 있지만 퇴계가 삶의 궤적을 남기며 살았던 시·공간적인 장소를 통해 토지사상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려는 철학적 접근은 없었다.

퇴계는 연속된 사회의 와중에서 탄압과 회유, 변전이 무상한 시기에 살았으면서도 나아감에 어긋나지 않고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끊임없는 간청으로 난진역퇴(難進易退)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당대의 정계와 학계를 이끌었던 인사들은 그 문하에서 수학하거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 가문의 문장(門長)의 위치에서 내외 친척을 영도하며 봉제사(奉祭祀)·접빈객(接賓客)·위선사업(爲先事業)을 큰 애로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일정한 경제적 기반과 규모 있는 치산이재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향산(恒産)의 기반 위에 향심(恒心)이 유지되듯이 역대의 이름난 학자들 중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변절자가 되거나 처신(處身)과 처세(處世)를 잘못하기도 하였지만 퇴계는 남달랐다. 율곡은 퇴계의 유사(遺事)에서 “관직에 나아가거나 물러남, 물건을 사양하거나, 받거나 주는 일의 절도는 털끝만큼의 차질이나 잘못도 감히 하지 않으셨다. 남들이 보내오는 바가 의롭지 않으면 끝내 취하지 않으셨다.”²²⁾라고 회고하였다. 조선시대 사림의 지조와 절개는 주자학적인 의리와 명분에 영향을 받은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공고한 지주적 성격 위에서 재조(在朝)·재야(在野)인사를 막론하고 일정 수준의 노비와 토지를 갖고 비교적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가능했다. 또한 퇴계의 평생사업과 사상·학문과 그가 다진 일정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성취되고 수련·온축되어 갔던 것이다.²³⁾ 퇴계의 손자와 손녀들이 1586년(선조 19)에 작성한 분제기를 검토한 결과 퇴계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관리에

20)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전계서, p.261.

21) 이수건, 전계서, p.237.

22) 『退溪先生言行錄』, 卷6, 「遺事」. 李珥撰[而其於出處進退辭受取子之節不取分毫差過 人有所遺 非其義終不取令].

23) 이수건, 전계서, pp.237~238.

있어서 퇴계는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가정 살림살이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결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안을 순조롭게 다스렸다. 벼와 무명을 교환해 두었다가 보리 풍년이 지면 바뀐 두 무명으로 쌀 보리를 바꾸도록 하고 영주와 의령의 산지에는 늘 곡식을 저장하게 하였다. 농업 경작은 가족의 이동을 검토한 후에 식부면적(植付面積)을 조절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퇴계는 땅을 일구고 사들이는 일, 땅의 오염을 걱정하며 보호하려는 일, 물건을 사고파는 일, 땅을 일구고 땅에 심을 면적을 조절하는 일 등을 살펴보면 퇴계는 선비로서 토지를 재산증식과 가치보존수단이 아닌 생계에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터전으로 보고 염담과육, 임재무구득, 건리사의, 취의사리 정신으로 이(利)는 버리고 의(義)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다.

3. 퇴계의 공간의식

본 장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퇴계의 공간의식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장이다. 따라서 퇴계가 거주했던 지산와사·양진암·한서암·계상서당·도산서당 순으로 퇴계가 지은 시를 토대로 퇴계의 공간의식이 무엇인가를 도출하기로 한다.

3.1 독서공간으로서의 지산와사

지산와사는 퇴계 일생에 있어서 퇴계가 최초로 집터를 선택하여 지은 집이다. 과연 퇴계는 31세에 주거공간이라는 개념 이외에 강학공간과 원림공간을 고려한 선택이었을까? 퇴계가 지산와사를 건립하게 된 배경, 집터로 선택하게 된 이유, 주변 자연을 표현한 시, 지산와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함으로써 퇴계의 공간의식에 대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 퇴계가 지산와사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한 것은 1531년부터 1534년 3월까지이다.²⁴⁾ 그러나 지산와사를 떠난 후 지산와사를 생각하며 지은 시 등은 퇴계의 공간의식을 보다 상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퇴계는 30세인 1530년 낀씨 부인과 재혼하고 이듬해인 1531년 영지산 북쪽 기슭, 온혜의 남쪽 양곡(陽谷)시냇가 두들에 지은 작은 집 지산와사로 분가했다. 퇴계가 지산와사를 건립하기 전 어린 시절 영지산 절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므로 지산와사를 건립할 땅에 대해서는 이미 그곳을 오가며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계가 지산와사에서 생활하면서 지은 시 <지산와사(芝山蝸舍)>, <영지정사 시²⁵⁾>를 보낸 것에 대해 퇴계가 수답한 내용의 시(奉酬靈芝精舍詩)>를 보면, 퇴계는 이미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平生志願)이 지산와사에 거주할 때 이미 정립되어

24) 지산와사는 퇴계가 출사한 이후 장남인 준이 살았으며, 여기서 손자 안도가 태어났다. 준이 외내(烏川)로 처가살이 간 다음에는 종손서인 이국량이 살았다고 한다. 권오봉, 『예던길』, 우신출판사, 1988, p.22. 1542년 8월 농암 이현보 선생이 벼슬을 그만 두고 이곳에 와서 지산와사를 중건하여 '영지정사'로 이름을 바꾸어 거주하였다.

25) 농암 이현보의 '영지정사를 노래하다'라는 시의 서문이다.

영지산은 본래 용두산의 지맥으로, 우리 집에서 북쪽으로 몇 리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렇게 높고 크지는 않으나, 봉우리가 자못 우뚝하고 언저리가 또한 멀리 퍼져나가 그 이름이 책에도 나오는 바이니, 보통 언덕과는 비길 것이 못된다. 옛날에는 여기 절이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 지나 허물어져 없어지고 중간에 어떤 중이 자재를 구하여 중건을 도모하였으나, 협소하고 낮아서 볼품이 없으니, 보는 사람들이 그 지세는 높고 상쾌하나 건물에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것도 또 화재를 당하여 없어졌다. 임인년(1542년) 가을에 내가 늙어 벼슬을 버리고 집에 돌아오니, 집 주위에 시내와 바위가 많고, 정자가 적지 않아 놀만한 곳이 많았지만, 속세의 분분한 생각이 그 사이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는 중들 중에서 좀 재간이 있는 조정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자재를 도와주고 정사 몇 칸을 여기에 다시 지어보게 하였다. 몇 달 뒤에 정사가 완성되자, 드디어 서울에 가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국의 명필에게 여기 달 현판 글씨를 좀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름을 암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고 한 것은 승려들이 자주 들락거려면서 분분하게 불공을 드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계에게 지산와사는 평생 자신이 추구해야 할 일에 대한 준비공간으로서 만권서가 소장된 독서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 휴식공간으로서의 양진암

퇴계는 양진암²⁶⁾에서 1546년 11월부터 1547년 8월 홍문관 응교로 소환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생활하였으며, 이 집에서 뜻을 세움(東巖言志)에 대한 2편의 시가 있다. 양진암은 퇴계가 시련의 해를 맞게 되면서 급하게 마련한 건물로 계장(溪莊)이라고도 한다. 1546년 2월에 장인 권질(부인 권씨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병으로 복귀하지 못해 5월에 해직되었으며, 7월에는 서울에 있던 부인 권씨가 사망한 후 11월 건지산 남쪽 하계 동암 근처에 임시로 장만한 우거이다. 따라서 양진암은 퇴계에게 강학공간의 기능보다는 을사사화로 인해 많은 선비가 희생되고 자신도 파직되는 등 수난을 겪은 퇴계에게는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개천은 본래 토계(兎溪)였던 것을 퇴계(退溪)로 고치고 자신의 호로 사용한 것으로 보면,²⁷⁾ 퇴계의 실질적인 벼슬살이 청산을 결심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양진암을 신축하면서 쓴 시에 <새벽일찍 계장에 이르러 우연히 동파의 신성도중에서 읊은 시가 기억되어 그 운자로 두 마리를 읊다(晨至溪莊偶記東坡新城途中詩用其韻二)>, 양진암을 완성하고 <동암에 언지하다(東巖言志)>라는 시, <양진암에서 오인원의 편지를 받았는데 양진이라는 글자가 있기에 이로 인하여 한절을 부치다(養眞庵得吳仁遠書有養眞字因

寄一絕)> 등이다. 이상의 시들을 검토한 결과 양진암에서의 생활을 종합해보면 양진암은 퇴계의 평생지원(平生志願)을 위해 새 출발을 하려는 준비 장소로서 휴양공간이라고 하기 보다는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진암은 한서암과 특성을 비교해보면 양진암은 자연공간에 인위적인 수양공간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진암은 퇴계가 매우 불행한 시기인 1546년 11월에 완공된 건물로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퇴계는 시에서 “참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서 쉬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퇴계에게 있어서 양진암은 자신의 지친 몸을 치유하기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3 수양공간으로서의 한서암

한서암이 건립되기까지의 배경을 보면 퇴계는 토계를 퇴계로 지명까지 바꾸고, 이를 호로 사용하면서 허갈이를 발갈이로 대신하고자 큰 결심을 하였으나 조정의 부름을 받고 1547년 8월 양진암을 떠났다. 이후 1548년 1월 단양군수로 부임하고, 2월에는 아들 채가 사망하게 된다. 8월 단양 향교에서 석전례(釋奠禮)를 거행하고 9월 휴가를 얻어 성묘하고, 10월까지 근무한 후 11월 풍기군수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1549년 9월부터 12월까지 감사에게 병으로 세 번의 해관을 청한 후 답을 기다리지 않고 귀향함으로써 1550년 1월 임소 무단이 탈로 풍기군수직을 삭탈 당하였다.²⁸⁾ 이후 퇴계 서쪽 하명동 자하봉 밑에 집을 짓다가²⁹⁾ 죽동으로 옮기고, 죽동도 동리가 좁고 계류가 없어 2월 퇴계 서쪽으로 옮기고 한서암이라 명명하였다. 한서암

는 것을 꺼려서이니, 다만 조정 스님 하나에게만 왕래하게 하면 고요히 거닐게 하여, 나의 휴양지를 삼으려하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이장우·장세후, 『퇴계시 풀이 1』,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pp.167~169. 참고 작성.

26) 동암에다 지은 서재 양진암을 계장(溪莊)이라고도 함.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퇴계전서 12』, 전게서, p.386.

27) 송궁섭, “퇴계선생연보(초역)” 『퇴계학연구』 제1집, 경상북도, 1973, p.19.

28) 상게서, pp.19~20.

29) 집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마을 근처에 낙천이 가깝고, 낙천은 곧 관가가 금하는 어량이 있어서 자손이 살기에 마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죽동은 골짜기가 좁고 냇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계상에 집을 지으니 곧 세 번 옮겨 완성한 것임. 이안도의 기록. 정순목,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2011, p.232.

에서 공간의식에 관련된 시로는 <초옥에서 황중거가 찾아옴을 기뻐하다(草屋喜黃仲舉見訪-庚戌罷郡歸鄉後)>, <농암 이 선생이 한서암에 왕림하다(韓巖李先生來臨寒棲)>, <한서암에서 비 내린 뒤의 풍경(寒棲雨後書事)>,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 화답하다(和陶集飲酒二十首)>에서 그 다섯째,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 화답하다(和陶集飲酒二十首)>에서 그 여섯째,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 화답하다(和陶集飲酒二十首)>에서 그 열한째,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 화답하다(和陶集飲酒二十首)>에서 그 열넷째,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 화답하다(和陶集飲酒二十首)> 그 열다섯째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퇴계는 도의를 터득할 수 있는 길은 배움에 뜻을 두고 겸손하게 하여 언제나 노력하여 같고 닦음으로써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진리는 항상 가까이 존재하지만 이를 찾고자 참다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리는 항시 멀리 있다는 것으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 화답하다>에서 그 열아홉째 시에서 퇴계는 젊어서 학문을 하고도 틈이 나면 벼슬에 나가고, 벼슬에 나갔다가 틈이 나면 학문을 한다는 것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었으나 퇴계 역시 어쩔 수 없이 벼슬살이를 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야 고향으로 돌아와 착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퇴계에게 있어서 한서암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위한 준비공간으로서 주변의 자연환경을 통해 나약해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이신양성(頤神養性)의 수양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4 강학공간으로서의 계상서당

1550년 퇴계가 한서암을 짓고 나서 인근의 유생들이 학문을 배우고자 한서암 근처에서 막을 짓고 몰려들었다. 이들에게 교육을 위해 이듬해인 1551년 초당골에 서당을 짓게 되니 바로 계상서당이다. 한서암에서는 대, 솔 뿐이었으나 계상서당은 국화, 매화, 대나무, 연을 심고 자신과 함께 육우원이라 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자연물에 이름을 붙이고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1552년 조정에서는 홍문관 교리와 경연의 시독관, 춘추관의 기주관, 승무원 교리를 겸직으로 소환하여 다시 상경하게 되었다. 따라서 계상서당은 문을 닫게 되었다. 계상서당이 문을 닫고 돌보지 않아 도둑들이 계상서당의 문짝을 뜯어 갔다. 이 소식을 듣고 퇴계는 몹시 화를 내고 “이것은 도둑의 죄가 아니고 나의 수치다.”라고 하며 아들 준에게 화를 내며 돌보지 않은 것을 꾸짖고 퇴계 자신의 오욕을 말하고 꿈을 구체화하는 오욕으로 발전시킨 곳이기도 하다. 1558년(명종 13년)에 23세의 율곡 이이가 성주 처가(장인 노경린 : 성주목사)를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안을 방문하였다. 비로 인하여 길을 떠나지 못하고 3일간 머무르게 되었다. 퇴계는 훌륭한 인재가 찾아와서 학문을 배우고자 함을 기뻐하며 육신희행³⁰⁾의 문제와 자신이 지내온 경험을 살려서 율곡에게 청년시절부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정케를 가르쳐 주며 율곡과 제자로서 인연을 맺은 곳이 바로 계상서당이다. 이때부터 김취려(金就礪), 이국필(李國弼)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서 많은 인재가 몰려들게 되었다.³¹⁾ 따라서 계상서당은 본격적

30) 육신희행이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여 부모의 병을 고친다는 효행설화이다. 퇴계는 주자가 다리 살을 베어 부모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중도를 넘어서 섰다[過中]”고 지적한 일에 대해 율곡에게 물었다. 이에 율곡은 화타와 같은 신동한 의원이 나와서 “이 병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피를 취하여 보조해야만 나을 수 있다.[此病必須取他人血而補之然後得瘳]”고 하여 자식이 육신희행을 한다면 모를까 사리로 본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함. 박균섭, 『한강 정구의 교육사상 재검토』, 『영남학』, 제2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p.171.

31) 권오봉,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2013, pp.163~164.

인 서당교육의 출발지로서 공간의식에 관련된 시 <청명일 계상서당에서 읊다(溪上書堂清明-寒栖移溪北小異其制爲堂若室次老杜韻)>, <봄날에 한가히 있으면서 노두의 시를 차운하니 여섯 절이다(春日閒居次老杜六絕句)>, 정월 초이틀 입춘 날(正月二日入春 壬子)>, <석강의 십경을 읊으니 조진사 운백을 위해서 지은 것(石江十詠爲曹上舍雲伯作)>, <송강의 시를 차운한 것(次韻松岡)>, <셋집 서헌에서 일찍 일어나서 본 일을 읊은 것(寓舍西軒早起卽事)>, <한사형을 보내어 천마산에 가서 글을 읽게 하고 아울러 남시보에게 부치니 다섯 절이다(送韓士炯往天磨山讀書 兼寄南時甫 五首)>의 첫째 수와 넷째 수 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천마산으로 글을 읽으러 가는 한운명을 송별하고 남시보에게 부친 시에서 퇴계는 공부하러 가는 한운명을 매우 부러워하면서 학자가 글 읽기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하며, 저술을 많이 하는 3다(三多)에만 그칠 것인가라고 하여 휴양과 휴식을 통한 학자로서 인격수양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 자신은 병으로 수년 동안 독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신이 『연평답문』 등의 서적을 만난 것이 오히려 천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퇴계는 계상서당에서 자신의 지병을 치료하면서 틈틈이 독서하며 학문을 터득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서 후학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따라서 퇴계에게 있어서 계상서당은 퇴계의 평생사업을 준비하는 강학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5 교육공간으로서의 도산서당

퇴계는 평소 자신의 오염을 이루기 위한 곳이 계상서당이 아닌 하명동 자하산기슭이나 단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도산의 터를 찾아와 퇴계에게 그 곳에서 강학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퇴계는 도산터에 직접 찾아가서 지은 <서당을 고쳐 지을 땅을 도산

남녘에 얻다>라는 시에서 그가 그토록 찾던 땅이 주변에 있으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며, 도산 땅을 보고 매우 만족하였다. 그리고 그간 꿈꾸던 평생의 사업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었다. 한번 답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남경상, 금응훈, 민응기와 아들 준, 손자 안도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나가서 도산 남녘 동학을 살펴보고 이를 읊다>라는 시에서 퇴계는 허술한 한서암은 여러 차례 읊겼으나 튼튼하지 못하여 얼마가지 않아 쓰러졌다. 비록 샘과 돌의 그윽함을 사랑하나 그 형세가 좁은 것이 흠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나 도산서당 터는 가격도 알맞고 사고팔기에 용이한 장수할 땅이라고 하였다. 도산서당과 관련된 시에 나타난 공간의식은 도산서당(陶山書堂), 암서헌(巖栖軒), 완락재(玩樂齋), 유정문(幽貞門), 정우당(淨友堂), 절우사(節友社), 농운정사(隴雲精舍), 관란헌(觀瀾軒), 시습재(時習齋), 지숙료(止宿寮), 곡구암(谷口巖), 천연대(天淵臺),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탁영담(濯纓潭), 반타석(盤陀石), 동취병산(東翠屏山), 서취병산(西翠屏山), 부용봉(芙蓉峯) 등이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도산기(陶山記)에는 도산서당의 지리적 위치와 풍수, 도산의 유래, 도산서당 터전을 중심으로 건물·시설로서 강학공간에 대한 포부와 이룩하고자 하는 뜻을 담아 건물과 시설마다 그 이름을 명명하고 직접 글을 써서 현판을 달았다. 산수·자연경관도 이용계획에 따라 근경과 원경마저도 도산서당과 연계하여 이름을 지어주고 의미를 부여하여 명성 높은 분들의 고원한 뜻을 이어받아 퇴계와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이는 누구나 함께 이용하고자 하였다. 거경궁리(居敬窮理)하는 공간과 경(敬)의 자세로 지행병진(知行並進)하는 터전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지선(至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선한 삶의 원리는 인간성에 내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한 성찰과 보존의 태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면 항상 경의 자세가 기본이며 필수적이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경의 자세가 유지된다면 덕성을 높이고 학문의 도[尊德性而 道問學]에 이르게 되어 결국 지선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지선에 머무는 삶은 자신을 이롭게 하여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이롭게 하고 더 나아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퇴계는 위기지학 하는 제자를 많이 길러서 착한 사람 많이 만드는 것이 오사 중의 하나이다. 도산서당의 터전을 중심으로 거경궁리 하는 삶의 자세로 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격물(格物)·치지(致知)의 이치를 깨닫는 공간으로 삼았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연 속의 사물들과 교감하며 유유자적하는 여유로움을 갖고 우유함영의 자세로 성의(誠意)·정심(正心)의 수양공간으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하여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짐으로써 몸을 건전하게 닦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을 밝게 밝히는 명명덕(明明德)의 바른 공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전하게 되어 행복한 마음일 때 드디어 주위를 살펴보고 나의 가족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넓고 크게 바라보며 인류애적인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사랑과 봉사로 인의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퇴계 자신의 삶과 삶을 실천하는 공간이자 공부하는 제자들도 스스로 터득하여 실천적 삶을 살도록 강학하고 토론을 하는 공간으로 삼았다.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향기를 뿜어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를 뿜어주는 난초처럼 어느새 본성이 회복되고 인성이 함양되어 지선(至善)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퇴계는 공부하는 목적과 까닭도 공부의 공효(功效)를 알고 닦아 나아가면서 자득하는 가운데 삶의 기쁨을 누리서 삶을 방향을 정립하고 올바르게 살아나가기로 하여 결국에는 성인에 이르고자 함이었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천·지·인이 조화롭게 융합된 교육공간인 강학공간과 수양공간으로 삼고자 하였다.

4. 교육적 함의

본 장은 퇴계의 유작을 통해 도출된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는 장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왜 퇴계는 관직생활 중 그토록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토지사상·공간의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둘째, 퇴계가 주택을 건립하고 자주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토지사상·공간의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셋째, 퇴계가 평생 오사(吾事)를 추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토지사상·공간의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기로 한다.

4.1 퇴계가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려고 했던 이유

퇴계는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70여 차례나 사직을 요청하였다. 그러면 왜, 퇴계는 자신이 그렇게도 귀향을 갈망하면서도 벼슬길로 진출하였을까? 그 배경부터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퇴계가 중국 황제의 탄신을 경축하는 사절단인 <성절사로 북경에 가는 동지 벼슬의 온계 형을 송별하면서(奉送同知兄 聖節使朝京)> 지은 시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매사에 신중하고 철저한 퇴계가 진퇴를 거듭한 끝에 결국 벼슬을 그만 두었다. 퇴계의 벼슬살이는 어머니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출사하였으며, 이후는 임금의 소환과 임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진퇴를 반복하게 되었다. 퇴계가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직사회에 대한 회의감, 지병, 자신의 평생의 업(平生志願, 平生有志, 吾業, 我平生事)을 위한 준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계가 고향으로 돌아와 남긴 시와 관직생활을 하면서 남긴 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자신의 평생의 오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퇴계는 평생 성인의 가르침을 후세대에게 전할 착한 사람을 많이 양성하여 온 나라 안을 도덕성이 회복된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퇴계는 먼저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여 강학활동을 통해 자신을 학문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수기치인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면 퇴계는 왜 한성에서 수기치인을 준비하지 않고 고향인 원림공간으로 찾아가려고 한 것일까? 그것이 바로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 때문인 것이다. 퇴계의 주된 토지사상은 지인합일사상(地人合一思想)이고, 공간의식은 토지사상을 토대로 하는 천지인합일사상(天地人合一思想)이었다. 퇴계는 땅을 만물의 근원인 어머니로서 만물은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만물과 땅은 본래 하나의 몸체였으며, 인간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퇴계는 자연에 이름을 붙이고 의인화하여 친구, 형제로 삼아서 자연과 땅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활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이 함양될 수 있다고 보았다.

퇴계의 참된 교육은 강학공간에 의한 강학교육과 원림공간에 의한 수양교육이 조화롭게 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퇴계는 자신의 지식습득은 독서활동 등을 통해 체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가능하지만 인성함양은 자신이 여가시간을 통해서 자연공간을 거닐면서 우유함영하고, 천지조화의 이치를 터득하여 심신을 수련할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산수가 조화롭게 구비된 자연공간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고층아파트단지내에 갇힌 저층학교들, 운동장 없는 각종 교육시설, 캠퍼스 없는 대학 등 현대 우리의 교육공간에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인성교육법을 제정하고,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성결핍에 의한 심각한 사건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인성교육을 단지 획일화된 틀 속에서 생산되는 봉어빵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퇴계가 제시한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공간에서 미래의 핵심역량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폐교된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많은 자연공간을 확보하거나 더 많은 자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함의하고 있다.

4.2 퇴계가 주택을 건립하고 자주 이사한 이유

퇴계는 일생동안 여러 번 집터를 구입하여 주택을 건립하였다. 퇴계 자신이 선택한 곳에 주택을 건립하고, 또 다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것은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퇴계가 자신이 지산와사, 양진암, 한서암, 계상서당 등을 선택한 곳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면서 그 집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장·단점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그 곳이 자신이 추구하려는 평생 오사의 목표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퇴계가 추구하는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인 것이다.

이와 같이 퇴계가 이사를 한 이유는 최상의 교육공간을 찾기 위한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퇴계가 보는 최상의 교육공간은 퇴계의 인결지령사상에 따라 수련한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의 고향이거나 또는 학덕이 높은 선비가 학덕을 남긴 곳에는 지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걸출한 인재가 배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퇴계의 인결지령사상은 첫째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이 인재가 나는 곳에서 인재가 난다는 논리로 이미 인재를 많이 배출한 환경에서는 인재를 배출하기 쉽다는 논리를 따른 것이다. 둘째는 아직 학덕이 높은 인재를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수련한 자연환경을 가진 곳을 찾은 것이다. 퇴계가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된 것은 강학활동을 위한 공간보다는 원림공간으로서 근경과 원경을 갖춘 곳으로 수양공간에 비중

을 둔 것으로 보인다.

퇴계가 자주 이사를 한 것은 인성을 갖춘 제자를 양성하여 성현의 가르침을 후세대에게 전하여 도덕적으로 완성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간을 찾은 것이었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는 강학활동과 강학교육은 인위적 환경에서 가능하지만, 수양활동과 수양교육은 자연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융합될 때 가능함으로 현대사회의 교육공간은 높은 지가와 자연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자연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결국 인성을 함양하는 데 시간적·공간적인 한계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미래사회에 있어서 핵심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교육공간의 첨단화보다는 자연공간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4.3 퇴계가 평생 오사(吾事)를 추구한 이유

퇴계가 평생 추구한 오사는 그 동안 퇴계가 여러 차례 이사를 한 이유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퇴계가 이사한 목적도 평생의 오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퇴계의 이사 종착지는 도산서당이었다. 도산서당은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퇴계가 추구하는 평생의 오사도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퇴계 자신이 평생 동안 추구한 오사에 대한 목표가 언제 정립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미 퇴계는 1531년 지산와사를 건립하고 <지산와사(芝山蝸舍)>라는 시를 통해 자신의 평생의 목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 시에서 퇴계는 그 모양이 달팽이처럼 생겼어도 몸은 감출 수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런대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뒷산이 추위와 더위를 막아 줄 것을 기대하며 퇴계가 당시의 처지에 만족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퇴계

가 그곳을 택한 것은 거리상으로 태어난 본가와 가깝고 무엇보다도 만권서를 잘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행할 평생지願(平生志願), 오업(吾業), 아평생사(我平生事)를 준비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1547년 왕자 봉성군을 죽이려고 ‘벽서의 옥’³²⁾이 일어났다. 이때에 퇴계는 이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귀향했다. 귀향 후 월관암에서 <오언 60구의 장시>, <도정절집 중에 실린 음주 이십 수 화답하다(和陶集飲酒二十首)>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이비오사(洗耳非吾事)를 밝혔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퇴계의 인생목표는 성인의 뜻을 후세대에게 전함으로써 착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퇴계는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성인의 가르침을 후세대에게 전달하고자 교육에 힘을 도산서당이라는 교육공간으로서 강학공간과 수양공간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은둔하여 독서를 통해 자신을 완성(修己)하고, 강학활동과 수양활동을 위한 최상의 교육공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퇴계는 토지·자연공간을 도덕성 회복을 위한 수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퇴계가 추구한 업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인의 가르침을 후세대에게 전할 올바른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올바른 제자는 올바른 학문적 지식과 인성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위적 강학시설과 자연적인 수양공간이 조화된 교육공간이 필요하였다.

퇴계는 자신의 평생사업을 위해 그간 자신의 독서활동 등을 통해 체득한 지식과 경험은 강학공간을 통해 제자에게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여 습득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여가를 통해 토지·자연공간을 거닐며 우유함영하고, 천치조화의 이치를 터득시키는 심신 수련의 참된 수양공부는 산수가 조화롭게 구비된 산수·자연공간만이 가능함을 알고 있

32) 김안로와 윤원형의 조작 의혹 사건은 날로 확대되고 송인수 같은 신하가 사약을 받고 어린 봉성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홍문관 응교로서는 막아낼 수 없는 옥사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남.

었다. 따라서 퇴계는 이러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이사를 반복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찾은 도산서당의 강학공간과 수양공간은 퇴계의 오사(吾事)를 완성시켜주는 최적의 교육공간이었다. 따라서 자연공간이 점점 사라져가는 초고층 아파트 숲에 갇힌 저층 학교에서 육성되는 청소년들에게 선한 인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숲과 자연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대 우리의 교육공간에서 퇴계의 도산서당 설립에 대한 그의 사상과 공간의식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대교육이 단기적인 입시와 취업을 위해 스펙 위주로 포장된 인재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인성이 함양된 인재를 양성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스펙에 의존하는 입시제도와 기업체의 채용기준보다는 인성이 함양된 인재를 채용하는 사회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정부가 인성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성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퇴계의 유학사상에서 찾고자 시도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퇴계가 일생 동안 기록한 시와 서 등 토지관련 문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이 무엇인가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에 따른 교육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인에게 결핍된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퇴계의 토지사상은 첫째, 시에 나타난 토지사상으로서 퇴계는 땅을 만물의 근원인 어머

니로서 만물은 땅에서 태어난 것으로 본래부터 인간과 땅은 하나의 몸체였다는 지인합일체사상(地人合一體思想)으로 보았다.

둘째, 서에 나타난 퇴계의 토지사상은 퇴계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만물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지인합일체사상을 토대로 토지를 공유물(共有物)로 보는 공유사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원기에 나타난 퇴계의 토지사상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의 고향 또는 인품이 높은 선비가 학덕을 남긴 곳에는 지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걸출한 인재가 배출된다는 인걸지령사상(人傑地靈思想)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산관리에 나타난 퇴계의 토지사상은 퇴계가 선비로서 토지를 재산증식과 가치보존수단이 아닌 생계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터전으로 임재무구득의 사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퇴계의 공간의식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산와사는 퇴계가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한 독서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진암은 퇴계가 1546년 1월 장인 권질의 장례, 5월에 퇴계 해직, 7월에 부인 권씨 사망 등 시련기인 그해 11월에 완성한 우거이다. 양진암은 이러한 시련기에 지친 몸을 재충전하는 휴식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진암은 퇴계가 나약해진 육체를 휴식하는 공간이었다면 한서암은 나약해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이신양성(頤神養性)의 수양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상서당은 가파른 지형, 좁은 집터, 홍수 때는 접근하지 못하는 시내 등으로 인해 수양공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이며 강학공간으로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산서당은 그간 독서공간, 휴식공간, 수양공간, 강학공간의 역할을 모두 담은 종합 교육공간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퇴계의 토지사상을 종합하면 지인합일체사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계의 공간의식은 지인합일체사상을 토대로 하늘(天)을 상재로 인식함과 더불어 천지인합일체사상(天地人合一體思想)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계가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려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오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修己治人]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인성의 결핍에 의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자연공간에서 자연에 의한 체험교육이 대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퇴계가 주택을 건립하고 자주 이사한 이유는 자신의 오사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교육적 함의는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공간의 첨단화보다는 자연공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퇴계가 평생 오사를 추구한 이유는 퇴계가 착한 사람을 많이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교육적 함의는 현대 교육이 단기적인 입시와 취업을 위해 스펙위주로 포장된 인재보다는 장기적으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인성이 함양된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스펙에 의존하는 입시제도와 기업체의 채용기준보다는 인성이 함양된 인재를 채용하는 사회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오봉, 『퇴계선생 일대기』, 교육과학사, 2013.
2. _____, 『예던길』, 우신출판사, 1988.
3. 금장태, 『퇴계평전』, 지식과 교양, 2012.
4.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5. 김호태, 『퇴계혁명』, 미래를 여는 책, 2008.
6. 박균섭, “도산서당 연구 : 교육공간의 구조와 성격”, 『한국학연구』, 제39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7. _____, “한강 정구의 교육사상 재검토”, 『영남학』, 제25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8. 박기현·장은숙, “퇴계전서에 나타난 토지용어의 유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6.
9.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출판부, 2012.
10. 송금섭, “퇴계선생연보(초역)”, 『퇴계학연구』, 제1집, 경상북도, 1973.
11.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12. 이장우·장세후, 『퇴계시 풀이 1-5』, 영남대학교출판부, 2007.
13. 이장우, 『퇴계시 풀이 6』, 영남대학교출판부, 2011.
14. 장은숙, “성학십도를 모델로 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청구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15. _____, “퇴계전서로 본 이황의 토지사상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2권 제2호,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2016.
16. _____, “퇴계의 토지사상과 공간의식의 교육적 함의”, 박사학위청구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17. 정석태 역, 『안도에게 보낸다』, 도서출판 들녘, 2005.
18.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2000.
19. _____,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2011.
20. 정순우, 『옛 선비 교육의 길』, 문음사, 1992.

(접수일 2019.03.10., 심사일 2019.03.18., 심사완료일 2019.03.25.)